

“도로공사 설계·관리 소홀 여전”

감사원, 서울·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감사결과

한형용 je8day@cnews.co.kr 2012-06-11 13:32:46

도로공사 설계를 잘못하거나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2009년 1월 이후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도로공사 설계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공사를 맡은 A사는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구간만 기존 설계보다 비싼 공법(친환경적인 공동 충전 공법)을 채택해 전체 공사에 적용한 것처럼 꾸며 29억여원 공사비를 부풀렸다.

이 도로공사의 다른 공구를 맡아 사업을 추진해온 B사도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 41억여원을 산정했고, 발주처는 이를 파악하지 않은 채 비용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원주국토관리청에 시공사의 과다 공사비를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을 과다 책정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06년 3개 공구로 나뉜 도로공사에서 교통량이 많은 1, 3공구는 2차로로 건설하고, 다른 구간보다 교통량이 적은 2공구는 4차로로 추진해 228억여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서울관리청이 도로 청소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의 견적서만 받는 등 특혜를 준 사례와 원주관리청이 40명의 도로관리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4명만 공개 채용하고, 나머지 36명을 직원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